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1.26.
배포 즉시

| | | | |
|----|------|----|-------------------------------------------------------------------------------|
| 매수 | 참고자료 | 사진 |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
| 2 | × | ○ | 소장 : 고옥곤 (02-2150-3750) 팀장 : 장주성 (02-2150-3756) 담당 : 박찬용 (02-2150-3758) |

과천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 유입량 감소’ 두 마리 토끼 잡아

○ 작년 12월 양재천 별양교 인근 BOD수치 0.5ppm으로 최저치 기록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2019년부터 2년간 중점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양재천 수질개선과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토양과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활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하천수 및 빗물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2019년부터 중앙동, 부림동, 장군마을 단독주택지역과 가일로 및 문원로 외 10개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공8단지에서 부림교 구간, 중앙동 및 문원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청사로에서 하수관 내 오수 누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부터 양재천 BOD수치를 연평균 1ppm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2.6ppm이었던 양재천의 BOD수치가

지난해 12월에는 0.5ppm까지 떨어지는 수질개선 효과를 달성하였다.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 측정된 양재천 BOD수치는 과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대기수질현황>하천수질측정분석결과 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 문원동 청계마을 등 단독주택지역 내 하수관로 오점, 관로 손상 및 파손, 이음부 이격 등에 대해 하수관로 내 CCTV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별양동 단독주택 230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발견한 24세대의 하수관로 오점상태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관로 오점은 생활하수가 나오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올해 추진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과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오점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양재천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천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